



UND : NARSHA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체 분석

사회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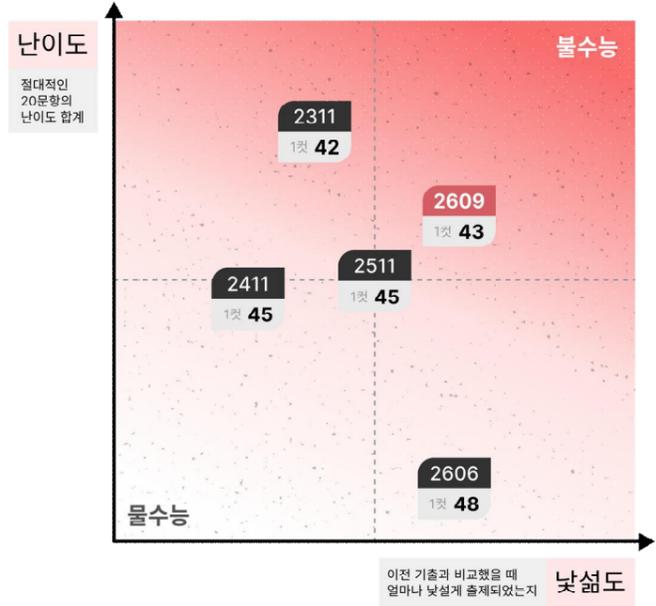
●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배점									
1	㉓	2점	6	㉕	3점	11	㉒	2점	16	㉑	3점
2	㉔	3점	7	㉒	2점	12	㉕	3점	17	㉔	2점
3	㉑	2점	8	㉑	2점	13	㉔	3점	18	㉑	3점
4	㉓	2점	9	㉔	3점	14	㉑	2점	19	㉕	2점
5	㉔	3점	10	㉒	3점	15	㉕	2점	20	㉓	3점

● 예상 등급컷(2026학년도 9월 표본 기준)

등급	점수
1등급	43
2등급	39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능세계 그래프



< 시험지 총평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짧게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특이한 소재를 일부 사용했지만, 고난도 유형에서는 기존 유형을 업그레이드해서 어렵게 출제된 시험지입니다. 평가원도 확실히 사탐런 현상으로 인한 표본 수준 상승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문화는 항상 6월/9월 모의평가는 쉽게, 수능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인식과 달리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비킬러 개념에서 어렵게 출제하고자 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유형별로 분석해봅시다.

이번 시험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형은 관점형(2번·7번·11번)입니다. 관점형 문항들이 전부 역대 기출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어진 글에서 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고난도로 출제되어 모든 문항들에서 정답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제형(9번·14번) 역시 쉽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14번 문항은 2025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운 명제형으로 출제되었던 14번 문항의 변형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익숙했겠지만 고난도 유형의 변형인 만큼 난이도는 낮지 않았습니다. 9번 문항은 새로운 형태의 명제형 문항입니다. 낯선 형태를 가지고 있어 초반에 조금 당황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질문에 대한 두 입탈 이론의 구분 가능/구분 불가능을 나타내기 위한 표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그 이후 풀이는 수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10번·15번·20번) 역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확실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10번에는 연계 교재에서만 등장하던 안쪽만 조립 유형이 개정 이후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계층이동과 일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15번 역시 제대로 된 3중 벤 다이어그램이 처음 출제되어 약간의 새로움을 주며 난도를 높였습니다. 20번은 형태적으로는 평범하나 문항에 담긴 논리가 기존 평가원 문항들보다 한 발짝 나아가 있어 쉽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그 외에 13번 문항 역시 주목해볼만 합니다. 평가원이 수능에서 난도를 올리기 위해 개수세기 문항을 최근 몇 년간 출제해 왔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개수세기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도 역시 난도를 올리기 위해 개수세기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수세기 유형에서는 처음, '신문'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㉒번 선지를 선택하여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나르샤는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징 문항 난이도 ★☆☆☆☆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 시드 볼트 (Seed Vault)는 ㉠ 식물 자원 고갈에 대비해 종자를 보관하는 금고이다. 종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갖춰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 양분을 이용해 발아를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 종자를 건조한 후 영하 20℃의 온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시드 볼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 종자가 노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시드 볼트는 인류가 미래의 위기로부터 ㉤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문항 특징 comment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영명 '특수 오일' 문항이 출제되며 논란이 일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1번 문항은 모두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선지에서도 크게 특별한 점 없었습니다.

[정답] ③

[해설]

㉡, ㉣은 자연 현상, ㉠,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옳은 선지]

③ ㉢(사문)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틀린 선지]

- ① ㉠(사문)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자연)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사문)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2.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아닌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된다.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사회는 작동한다.

- 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②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③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본다.
④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문항 특징 comment

이번 시험지에 관점형 문항이 3문항 (2번:기갈상, 7번:식재명목, 11번:진화순환)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에 '지위', '역할 수행' 등의 키워드로 함정을 걸고, 선지를 [갈-상-갈-기-갈]로 구성해 잘못 판단하면 ②(상징적 상호 작용론)를 찍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수능 3번과 정확히 동일한 형태입니다.

[정답] ④

[해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며,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개인들을 통해 사회가 작동한다고 보므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선지]

④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틀린 선지]

- 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②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③ 사회적 지위가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참고] 2023학년도 대수능 3번

3.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 접촉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킨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로 이어진다. 전문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①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②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③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④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⑤

[참고] <나르샤 실전분석서 - 2025년 5월 출간 > 관점형 파트 설명

◆ 평가원은 어떻게 함정을 파는가?

평가원은 '키워드를 통한 발췌'를 저격한다.

2023학년도 대수능 3번
3.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 접촉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킨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로 이어진다. 전문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①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②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③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④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호 작용을 증가' ->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을 유발' -> 갈등론?
'질서를 유지' -> 기능론?

지문에서는 기-갈-상 모두 착각할 만한 키워드를 깔아두고, 선지에서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착각했을 때 ②번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②번을 고르고 "함정에 당했다. 역시 사문은 함정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구성이다.

◆ 관점형 문항 학습 방법

관점형 문항은 처음 보는 지문 + 익숙한 선지로 구성된다.

매번 다른 소재로 새로운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문항을 풀어보며 관점을 파악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2025학년도 대수능 12번
12.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계산적 심성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국가 권력에 기반을 둔 행정과 로이법과 기초한 법률은 사구인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은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보기>
가. 사회에 의해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나.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다.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본다.
라. 사회는 개인 이익을 실현해 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본다.
지문은 언제나 처음 보는 내용이다.
문맥을 읽어내 어떤 관점인지 판단해야 한다.
=> 난이도: 상 -> 연습 필요
선지는 교과서 개념에 기반한 내용이다.
지문만 맞게 대응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난이도: 하 -> 개념 학습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르

위 지문의 '계산적 심성'에 관한 내용은 개념 강의에서 배울 수 없다. 지문으로부터 문맥을 읽어내 어떤 관점인지 판단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3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항 난이도 ★☆☆☆☆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최근 여러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조직의 영웅이라고 착각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조직 운영 원리 A와 B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A의 경우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문화에서 개인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편, B의 경우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개인이 자신의 높은 직급을 내세우며 의사 결정을 독점하여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① A에 비해 B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 ② A와 달리 B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B에 비해 A는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 ④ B와 달리 A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가)에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가 들어갈 수 없다.

문항 특징 comment

평소에 출제되던 관료제 문항들과 비교하면 약간의 변화가 추가되었으나, 문항 난이도 자체는 기출 문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⑤에서 (가) 박스에 '해결책'을 채우는 것이 생소했을 수 있으나, 정답 선지가 ①이라 정답률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탈관료제의 단점'을 언급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선지에도 반영되며, 개정 이후 최초로 관료제에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선지가 2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법 합니다.

[정답] ①

[해설]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옳은 선지]

① A(탈관)에 비해 B(관)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틀린 선지]

- ② B(관)와 달리 A(탈관)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탈관)에 비해 B(관)는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 ④ A(탈관)와 달리 B(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가)에는 의사 결정을 독점하여 권한 남용이 발생하는 관료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가)에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가 들어갈 수 있다.

✓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를 통해 의사 결정의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탈관료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참고] 나르샤 6평 해체 분석서 발췌 (2025.06.05. 배포)

18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항 난이도 ★☆☆☆☆

18.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기업은 설립 초기 A의 운영 원리를 도입하여 고정된 부서나 직책 없이 유동적인 프로젝트 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B의 운영 원리를 도입하였다. B의 운영 원리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성원 간 협력도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 ① A와 달리 B는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 ② A와 달리 B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 ③ B에 비해 A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 ④ B에 비해 A는 목적과 수단의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⑤ A, B는 모두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문항 특징 comment

기출 평가원 문항들과 다름 것이 전혀 없는 문항입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자면, 교과서에서는 관료제라는 조직 운영 원리를 제시하고, 관료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탈관료제가 등장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도 현재까지 관료제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문항에서는 탈관료제의 단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존 경향성과는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정답] ③

4. 자료에 제시된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의 속성 A, B가 부각된 사례

A



힙바족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제(Otjize)를 바르고 머리를 땀을 어머니로부터 배움.

B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Adumu)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함.

< 보 기 >

ㄱ. A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A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것을 들 수 있다.

ㄷ. B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항 특징 comment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문화속성 테마가 교사평가가 아닌 사례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문항들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문과 선지 모두 힘을 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 6·9월 모의평가 모두 개수세기가 출제되지 않았다가 수능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수능에서 다시 교사평가가 출제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정답] ③

[해설]

A(오티제를 바르고 머리를 땀을 어머니로부터 배움)는 학습성,

B(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함)는 공유성이다.

[옳은 선지]

- ㄴ. A(학습성)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 하며 익히는 것을 들 수 있다.
- ㄷ. B(공유성)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린 선지]

- ㄱ.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A(학습성)의 사례가 아니다.
- ㄹ.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B(공유성)의 사례가 아니다.

5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문항 난이도 ★★☆☆☆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지방 자치 단체 A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A는 ㉠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전과 후에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생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시범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 갑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명을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 기>

- ㄱ. 갑의 연구에서 ㉠은 표본이다.
- ㄴ.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ㄷ.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항 특징 comment

6월 모의평가와 달리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ㄱ ㄴ ㄷ형으로 출제되어 정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을 숙독했다면 ㉠을 표본으로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연구 테마에서는 항상 [지문의 정독]과 [개념의 완벽한 숙지]가 중요함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정답] ④

[옳은 선지]

- ㄴ. 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들의 정보를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ㄷ. 갑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유의미하게 컸으므로,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틀린 선지]

ㄱ. 갑의 연구에서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표본이 아니다.

✓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 명이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다.

[참고]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 사회 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대한 ㉡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전국에서 ㉢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가족 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로 파악하였다. ... (중략) ...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문화 소비와 지인 관계망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 기>

- ㄱ.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ㄴ. ㉡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 ㄷ. ㉢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6.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킨다.
- ② 유행에 따라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진다.
- ③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일반 대중에게 강요한다.
- ⑤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양산한다.

문항 특징 comment

축구 경기 그림 이후로 또 한 번 그림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방문 역시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그림 자체에 적힌 글들도 꽤 공격적으로 표현된 참신한 문항이지만 난이도는 매우 낮습니다.

[정답] ⑤

[옳은 선지]

- ⑤ 그림에서 작가는 실제 통계, 인터뷰 원본, 팩트 체크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뉴스성 키워드, 선정적 사진 등의 자극적인 문화를 양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틀린 선지]

- ① 독창성과 개성 약화, ② 유행에 따라 소비, ③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 ④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 강요는 나타나 있지 않다.

7.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왜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이것은 '자기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기만을 하며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기기만을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함께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보 기>

- ㄱ.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항 특징 comment

이번 시험지에서 난이도 TOP 5에 들 정도로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항정 요소로 사회 실재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포진되어 있어, 지문에서 제시하는 '자기기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풀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④번 선지의 선택률이 50%에 준할 정도로 보이며, 절대 쉬운 문항은 아니었기에 심도 깊은 학습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정답] ②

[해설]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기만을 하며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자기기만을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함께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선지]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틀린 선지]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다양한 이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왔다. A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만의 ㉠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펼친 운동에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갑국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고, 이는 새로운 ㉡ 사회 운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A 이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칭하고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갑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 ② ㉡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 ③ ㉠과 달리 ㉡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다.
- ④ ㉡과 달리 ㉠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이다.
- ⑤ ㉠과 ㉡은 모두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문항 특징 comment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과 유사하게 하위문화 + 사회운동 융합형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문항 모두 방책독이 불가능하고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함께 복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①

[옳은 선지]

① ㉠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 '그들만의 사회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표현에서 하위문화의 특성이,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에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틀린 선지]

- ② 제시문에 따르면, ㉡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과 ㉡은 모두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④ ㉠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⑤ ㉡은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참고]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13.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는 ○○ 연합이었다.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였다. 전쟁을 반대하는 ㉠ 평화 운동 집회에서는 형제애와 연대의 언어가 넘쳐흘렀다.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 태도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했고 여성이 논의를 주도하려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다. 남성들은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었지만, ㉡ 남성 우위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순응했다. 여성들 역시 초기에는 이러한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수 여성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 ㉢ 반전 운동을 넘어 미국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 여성 운동으로 발전했다.

<보 기>

- ㉠. ㉠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이다.
- ㉡. ㉡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이다.
- ㉢. ㉢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다.
- ㉣. ㉣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④

9.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질문과 교사의 평가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단원 확인 평가>
※ 제시된 2가지 일탈 이론에 대해 하나는 '예', 다른 하나는 '아니요'로 응답이 나뉘는 질문을 작성하시오.

일탈 이론	질문	평가 결과
A, B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맞음
A, D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	맞음
B, C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맞음
C, D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틀림

- ① A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 ② B는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 ③ C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④ D는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 ⑤ C, D와 달리 A, B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문항 특징 comment

구분가능 유형을 정수포의 틀에 결합시킨 형태의 문항입니다. 본 문항에서는 '평가 결과'가 '맞음'-'틀림'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나, 정수포 문항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채점 결과'도 변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충분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 예상됩니다.

[유사문항] <나르샤 모의고사 시즌1 - 2025년 8월 12일 출간 >
*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문항의 일부를 가렸습니다.

<수행 평가>
※ 질문에 따라 A~D 중 두 이론씩을 골라 '구분 가능', '구분 불가능'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구분 가능	구분 불가능	채점 결과
	A와 C	B와 D	2점
	A와 C	B와 C	1점
	B와 D	A와 C	0점
	A와 D	B와 C	2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해당하는 칸에 두 이론을 맞게 적은 경우 1점을, 틀리게 적은 경우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2점임.

[정답] ④

[해설]

[step1] 주어진 조건 정리

- (1) 평가 결과가 '맞음'이면 제시된 2개의 일탈 이론이 구분 가능하고, '틀림'이면 구분 불가능하다.
- (2) 각 질문에 해당하는 일탈 이론과, 조건에 제시된 구분 가능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st. 뒤르캬, 머튼, 차별교제	...	맞음 = 구분 가능
2nd. 뒤르캬	...	맞음 = 구분 가능
3rd. 낙인	...	맞음 = 구분 가능
4th. 차별교제, 낙인	...	틀림 = 구분 불가능

[step2] 주어진 조건 해석

- (3) 1st A·B 중 하나가 낙인 이론이다.
2nd A·D 중 하나가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이다.
3rd B·C 중 하나가 낙인 이론이다.
4th C·D는 (차별교제·낙인) or (뒤르캬·머튼)이다.

[step3] 일탈 이론 매칭

- (4) 1st+3rd에서 A·B와 B·C 모두에 낙인 이론이 있어야 하므로, B는 낙인 이론이다.
- (5) B가 낙인 이론이므로 4th에서 C·D는 뒤르캬·머튼 중 하나이다.
→ 2nd에서 D가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이다.
- (6) 4th에 의해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남은 A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 A는 차별 교제 이론, B는 낙인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이다.

[옳은 선지]

- ④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하는 것은 D(뒤르캬)이다.

[틀린 선지]

- ①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A(차별교제)가 아니라 B(낙인)이다.
- ②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B(낙인)가 아니라 C(머튼)이다.
- ③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C(머튼)가 아니라 A(차별교제)이다.
-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것은 A(차별교제), B(낙인)가 아니라 C(머튼), D(뒤르캬)이다.

10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문항 난이도 ★★★★★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3점]

다음은 ○○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며,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자료 1>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A	B	C
부모 세대	30	50	20
자녀 세대	50	30	20

<자료 2>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이동 현황

세대 간 이동 양상	세대 간 이동 비율(%)
A → B	10
C → B	5
A → C	10

*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함.

-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
-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
-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다.
-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문항 특징 comment

3x3표를 직접 조합해야 하는 몇몇 '안쪽칸 조합' 유형입니다. 순서대로 타다다다 결정되는 논리가 인상적인 문항으로, 개정 전 '안쪽칸 추론' 수준으로 난도가 높지는 않지만 연습이 부족했다면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을 수 있습니다. 계층이동은 도표 유형 중 가장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는 테마로, N제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연습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나르샤 실전분석서 - 2025년 5월 출간> 계층이동 파트 설명

III. 계층이동 : Next?

◆ 계층이동 유형 완벽 정리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유형은 없을까?
3개년 수능 특강에서 등장한 모든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 개념	안쪽칸 추론	모두 제시	바깥칸 제시	개인의 이동	안쪽칸 조합	도표 계산
26수특	6개	1개	1개	3개	1개	2개	2개
25수특	4개	2개	2개	5개	1개	2개	0개
24수특	6개	0개	3개	3개	3개	1개	0개
합계	16개	3개	6개	11개	5개	5개	2개

기초 개념은 항상 등장하니 예외로 두고,
성별 격차와 유사한 도표 계산 문항 / 옛기출인 <안쪽칸 추론>을 제외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① 모두 제시 / ② 바깥칸 제시 / ③ 개인의 이동 외에 '안쪽칸 조합'이라는 신유형이 존재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조건에서 3x3표를 제시하긴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3x3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시하여 → 3x3표를 직접 조합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아직 기출에 등장한 적은 없으나,
수능 특강에서는 매년 등장하고 있는 유의미한 유형으로,
사실상 <모두 제시>와 풀이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언제든 평가원에서도 등장할 법한 소재이다.

뒤에서 실제 문항을 통해 연습해보도록 하자.

[정답] ②

[해설]

- A에서 B로의 이동과 C에서 B로의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므로 B는 하층이고, A에서 C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므로 C는 상층, A는 중층이다.
- 세대 간 이동 양상과 세대 간 이동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3x3표의 안쪽칸 조합 유형이다. 먼저 <자료1>에서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을 제시했으므로 3x3표의 바깥쪽에 적어주자.

구분	부모 세대			계	
	A(중)	B(하)	C(상)		
자녀 세대	A(중)	①	②	③	50
	B(하)	④	⑤	⑥	30
	C(상)	⑦	⑧	⑨	20
계	30	50	20	100	

- <자료2>에서 세대 간 이동 양상에 따른 이동 비율을 제시했다. A→B는 위의 표에서 ④에, C→B는 위의 표에서 ⑥에, A→C는 위의 표에서 ⑦에 해당한다.

구분	부모 세대			계	
	A(중)	B(하)	C(상)		
자녀 세대	A(중)	①	②	③	50
	B(하)	10	⑤	5	30
	C(상)	10	⑧	⑨	20
계	30	50	20	100	

- 부모 세대 A 비율은 30%이므로 ① = 10이고, 자녀 세대 B 비율은 30%이므로 ⑤ = 15이다.
-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므로 ①+⑤+⑨는 30%이다. ① = 10이고, ⑤ = 15이므로, ⑨는 5이다.
- 부모 세대 C 비율은 20%이므로 ③은 10이고, 자녀 세대 A 비율은 50%이므로 ②는 30이므로, 남은 ⑧은 5이다.
- 계층 구성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계	
	A(중)	B(하)	C(상)		
자녀 세대	A(중)	10	30	10	50
	B(하)	10	15	5	30
	C(상)	10	5	5	20
계	30	50	20	100	

[옳은 선지]

-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5)보다 중층(10)이 많다.

[틀린 선지]

- 갑의 부모 계층(A, 중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C, 상층)이 높다.
-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25)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45)가 많다.
-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자녀 세대 계층 구조(다이아몬드형)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피라미드형)가 사회 통합 실현에 불리하다.

11.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이들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운다.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 피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다.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

<보 기>

- ㄱ.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 ㄷ.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 ㄹ.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항 특징 comment

관점형 3문항 중에서는 가장 쉬웠던 진화순환 문항입니다.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명확한 힌트가 있었기에 지문 전체를 정독했다면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 ②

[해설]

힘이 강한 민족이 문명의 꽃을 피우지만, 자라나는 혐오감이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키며 또 다른 민족이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고 했으므로,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선지]

-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ㄷ.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틀린 선지]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ㄹ.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의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가져가 판매했다. 이로 인해 갑국의 서민층도 바르는 향수를 사용하게 되어 갑국에서 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 이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하였다. A의 향수는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다.

- ① 갑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② 을국에서 비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 ③ 갑국에서 자극 전파가, 을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④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문항 특징 comment

모든 문화 변동이 '향수'를 키워드로 하여, '뿌리는 향수', '바르는 향수', '향수 제조 비법' 등의 문화 요소가 등장해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갑국과 을국에 향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지문에 명확하게 등장하기에, ⑤번으로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정답] ⑤

[옳은 선지]

-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틀린 선지]

- ① 갑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 ✓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한 것은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어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다.
- ② 을국에서 비물질문화가 아닌 물질문화의 전파가 일어났다.
- ③ 갑국에서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 ✓ 갑국에서 자국의 전통 의례 방식에 착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향수를 만든 것은 자극 전파가 아닌, 발명이다.
- ④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3 사회화 기관, 사회 집단 복합 문항 난이도 ★★☆☆☆

1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청년 목수 갑, 펜을 든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내 혼성 합창단에서 친해진 ㉠ 외국인 노동자 을의 산업 재해를 목격하였다. 당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갑은 마라톤 동호회에서 알게 된 ㉡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 갑은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자 노동 인권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이 투고한 글이 신문에 실려 화제가 되었고, 갑은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갑은 평범한 이들의 노동과 삶이 오롯이 대우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펜을 든다.

<보 기>

ㄱ.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ㄴ. 자료에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 적혀 있다.
 ㄷ.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와 동일하다.
 ㄹ.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2개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항 특징 comment

시험 종료 직후 '신문'이 사회화 기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사회화 기관의 예시로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직장, 대중 매체] 5가지를 배웁니다. 2025학년도 대수능 4번에 '가족'이 출제되었고, 본 시험지에 대중 매체인 '신문'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기출에서도 '신문'에 대한 명확히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도 있었지만, 개수세기 유형으로 출제되며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 ④

[해설]

자료에 적혀 있는 조직·집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료에 적혀 있는 조직·집단		
고등학교	△△건설 회사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 신문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옳은 선지]

- ㄱ. ㉠(외국인 노동자)과 ㉡(인권 변호사)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ㄷ.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고등학교)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사내 혼성 합창단)와 동일하다.

✓ 노동조합은 비공식 조직이 아님을 기억하자.

- ㄹ.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의 개수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사내 혼성 합창단, △△건설 회사,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신문)가 2개 많다.

[틀린 선지]

- ㄴ. 자료에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인 공동 사회가 적혀 있지 않다.

[참고] 2025학년도 대수능 4번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자: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 동아리를 만나 보겠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갑: ☆☆대학교 내 영화제작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권 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을에게 제가 제안하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을: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병: 저는 갑과 함께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상을 계기로 셋이 □□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보 기>

ㄱ.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ㄴ.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1개이다.
 ㄷ.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2개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참고]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5. 그림에서 갑~병의 대화를 (가)~(라)에 관련지어 옳게 설명한 것은? [3점]

구분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가)	(나)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다)	(라)

- ① ○○사관학교는 (가)에 해당한다.
 ② 갑은 (나)에 속하는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③ 을은 (라)에 속하는 사회화 기관을 중요시한다.
 ④ 병은 (나)보다 (다)에 속하는 사회화 기관의 사회화 기능을 더 선호한다.
 ⑤ 갑~병의 대화에 나타난 사회화 기관 중 (라)에 속하는 것은 2개이다.

[정답] ⑤

14.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임.)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오	채점 결과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A, C	B, D	①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	A, B, C	D	2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A, C, D	B	3점
방법론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가?	C, D	A, B	4점

* 교사는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자료 수집 방법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자료 수집 방법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 ① ①은 '1점'이다.
- ② A와 달리 B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 ③ B와 달리 C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 ④ C에 비해 D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 ⑤ D에 비해 A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

문항 특징 comment

2025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신유형 점수표를 그대로 가져온 문항입니다. '채점 결과'를 하나 가려 해당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높지만, 논리가 크게 방정하지는 않았습니니다. N제나 실경 모의고사를 통해 명제형 문항을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답도 ①번이라 오히려 준킬러 중에서 가장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답] ①

[해설]

- (1) 각 질문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st. 참여 관찰법
 - 2nd. 실험법
 - 3rd. 질문지법, 면접법
 - 4th. 질문지법, 실험법

[step1] 주어진 조건 해석

- (2) 2nd에서 2점을 획득했으므로 A, B, C 중 실험법이 있어야 한다.
- (3) 3rd에서 3점을 획득했으므로 A, C, D 중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둘 다 있어야 한다. 즉 B는 질문지법/면접법이 아니다.
- (4) 4th에서 C·D는 질문지법·실험법이고, A·B는 면접법·참여 관찰법이다.

[step2] 자료 수집 방법 매칭

- (5) (2)와 (4)를 종합하면 C는 실험법이고, (3)과 (4)를 종합하면 B는 참여 관찰법이다. ∴ A는 면접법, B는 참여 관찰법,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다.

[옳은 선지]

- ① 1st에 해당하는 것은 참여 관찰법뿐이므로, ①은 '1점'이다.

[틀린 선지]

- ② B(참관)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다.
- ③ C(실험법)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지 않는다.
- ④ D(질문지법)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 ⑤ D(질문지법)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

[참고] 2025학년도 대수능 14번

14.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체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오	채점 결과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B, C	A, D	3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B, D	A, C	2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B, D	A, C	1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B, C	A, D	3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이론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 ① A의 사례로 신입 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②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C의 사례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④ B와 달리 D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⑤ D와 달리 A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정답] ①

15 복지 제도

문항 난이도 ★★★★★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 보장 제도 A~C를 운영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A에 해당하는 제도로 고용 보험 기금을 통해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B에 해당하는 제도로 청년 기초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C에 해당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표는 갑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단위: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3중 수혜자	비(非)수혜자
70	19	12	2	8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중복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보다 많다.
- ②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4배이다.
- ③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적다.
- ④ 비(非)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 ⑤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

문항 특징 comment

3번 만에 3중 벤 다이어그램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칸을 채워야 하는 고난도 문항으로, 시간이 꽤 많이 소모되고 계산량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칸을 다 채웠더라도, 실수로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에서 비수혜자를 세지 않았다면 ③번을 골라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3중 벤 다이어그램은 사전에 연습이 꼭 필요한 문항이니, 유사 문항들을 통해 최대한 많이 연습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유형 A~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가), (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10	2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6	9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50	45

* (가) 지역의 각 수치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2%)이, (나) 지역의 각 수치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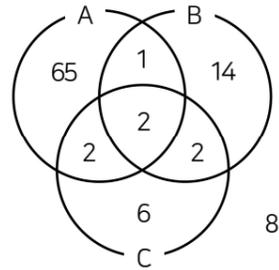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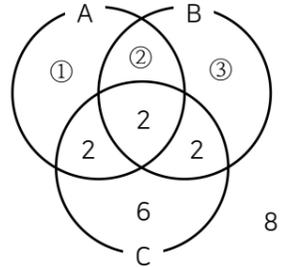
- ①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 ② B는 A, C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C는 A, B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 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나) 지역이 같다.

[정답] ⑤

[정답] ⑤

[해설]

- (1) A는 보험 기금을 통한 실업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회 보험, B는 기초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므로 공공 부조, C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 사회 서비스이다.
- (2) A, B, C를 모두 받는 3중 수혜자가 2%이므로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과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은 각각 4%이다.
- (3) C 수혜자가 12%이므로, C만 수혜하는 비율은 6%이다. 현재까지 정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 A 수혜자는 70%이므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A 수혜자를 제외한 부분인 ③+2+6+8이 30이 되어야 한다. → ∴ ③=14이다.
- (5) B 수혜자는 19%이므로 ②=10이고, A 수혜자는 70%이므로 ①=65이다.
- (6) 수혜자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옳은 선지]

- ⑤ 사회 서비스(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6)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5)보다 많다.

[틀린 선지]

- ① 중복 수혜자 수(7)는 비(非)수혜자 수(8)보다 적다.
- ② 사회 보험(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65)는 공공 부조(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14)의 4배보다 많다.
- ③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93)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A&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86)보다 많다.
- ④ 비(非)수혜자 수(8)는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5)의 2배보다 적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는 행인과 다툼을 겪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A는 갑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은 갑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 A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갑국 국민과 달리 A는 정당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 을국 국민인 B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하였다. B는 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은 화재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가 대피에 방해가 된다며 입학할 허가를 하지 않았다. B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냈고 그 결과 을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되어 B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①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②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 ③ B와 달리 A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④ 갑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난다.
- ⑤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난다.

문항 특징 comment

소수자 테마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등장인물도 A, B뿐이고, 선지도 크게 낡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번 선지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헷갈렸다면, 개념과 더불어 기출 복습이 필요합니다.

[정답] ①

[옳은 선지]

- ①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진술서를 갑국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업무 지침)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틀린 선지]

- ②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 을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된 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일 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아니다.
- ③ B는 다리를 다쳤다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④ 갑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제시문에서는 다리를 다쳤다는 신체적 특성으로 차별을 받은 사례만 등장했으므로,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17. 다음 자료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장면 #2〉
 갑: (반가워하며) 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느라 늦었어.
 을: (화를 내며) 널 기다리느라 1시간이나 버렸잖아!
 갑: 시간을 버렸다고? 우리 지금 만났잖아. 우리 문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간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거든.
 을: 너희 나라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달리 너희 나라는 후진국인 거야.

교사: 지난 시간 〈장면 #1〉에서는 자기 나라 문화를 비하하며 다른 나라 문화를 동경했던 병의 사례로 A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장면 #2〉에 나타난 을의 태도인 B는 갑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틀림이 아니기에 C를 통해 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A는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 ② B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 ③ C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A, B와 달리 C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 ⑤ B, C와 달리 A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문항 특징 comment

문화태도 테마 역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장면〉을 평가하는 세팅이 2022학년도 대수능 14번과 유사하지만 난도가 매우 낮아, 크게 살펴볼 가치는 없습니다.

[정답] ④

[해설]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옳은 선지]

- ④ A(사대), B(자문화)와 달리 C(상대)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틀린 선지]

- ① A(사대)는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 ② B(자문화)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 ③ C(상대)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⑤ C(상대)와 달리 A(사대), B(자문화)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18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문항 난이도 ★☆☆☆☆

18.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세계화의 영향은 이중적이다. 우선,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하게 했다.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을 고부가 가치 산업에, 개발 도상국을 저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세계화는 (가)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소득 증가의 혜택은 자산가 및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 ①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 ②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
- ③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
- ④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 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

문항 특징 comment

영미의 빈곤 추론 유형 느낌이 강하게 드는 문항이었습니다. 평가원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출제할 때, 대충 읽지 않는 이상 누가 봐도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답 선지를 쉽게 출제해 왔으나, 본 문항은 (가) 앞쪽만 읽었다면 오답을 고르도록 선지를 구성했고, '한편'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가) 뒤쪽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정답] ①

[옳은 선지]

① 제시문에 따르면 (가) 아래쪽 내용에서 선진국에서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개발 도상국에서는 자산가 및 고소득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에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가 들어갈 수 있다.

[틀린 선지]

- ② 제시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숙련 노동자에게 소득 증가의 혜택이 집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에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들어갈 수 없다.
- ③ 제시문에서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음, ④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 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9 빈곤 문제

문항 난이도 ★☆☆☆☆

19.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빈곤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전체 인구 대비 30%가 ㉠ 빈곤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10%의 인구가 ㉡ 빈곤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하여 □□지역 인구의 약 20%가 ㉢ 빈곤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과 달리 ㉡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 ② ㉢과 달리 ㉠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③ ㉢과 달리 ㉡은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에 비해 ㉠, ㉢은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⑤ ㉠, ㉡과 달리 ㉢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항 특징 comment

처음으로 대안이 3개 등장한 특이한 빈곤 문항입니다. 대용만 잘했다면 선지 판단은 수월했을 것이지만, ㉠~㉣ 중 2가지 이상이 동일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지 전체의 낯섦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정답] ⑤

[해설]

㉠, ㉡은 절대적 빈곤, ㉢은 상대적 빈곤이다.

[옳은 선지]

⑤ ㉠(절빈), ㉡(절빈)과 달리 ㉢(상빈)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2023학년도 대수능,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모두 중요하게 등장했던 선지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정답 선지로 등장하였다!

[틀린 선지]

- ① ㉠(절빈)과 ㉡(절빈)은 모두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하기 어렵다.
- ② ㉠(절빈)과 ㉢(상빈)은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③ ㉡(절빈)과 ㉢(상빈)은 모두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 ✓ 이는 주관적 빈곤의 설명에 해당한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객관적 빈곤에 해당한다.
- ④ ㉢(상빈)에 비해 ㉠(절빈), ㉡(절빈)은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t년 대비 t+30년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15~64세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이고,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이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구분	갑국	을국
유소년 부양비	증가	불변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불변	감소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조건>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노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① t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 ② t+3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0보다 클 것이다.
- ③ t+30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120보다 클 것이다.
- ④ t년 대비 t+30년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 ⑤ t년 대비 t+30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갑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문항 특징 comment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3개의 인구비(t년, t+30년, t+60년)를 구하는 데 반해, 본 문항은 4개의 인구비(갑국(t년, t+30년), 을국(t년, t+30년))를 구해야 하므로 난도가 더 높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 지표들을 분수로 계산해야 하는 선지가 등장하며, 55/45와 120/100의 대소를 비교 하는 고난도 계산이 출제되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조건>

1.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는 부양 인구(15~64세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3배이다.
2. A 시기는 t년 대비 t+30년으로, B 시기는 t+30년 대비 t+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3. A 시기와 B 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4.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A 시기와 B 시기의 인구 변화 양상 예측>

구분	A 시기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감소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변화 없음	감소
유소년 부양비	감소	증가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피부양 인구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①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 ②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 ③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 ④ t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30년의 총부양비는 100이다.
- ⑤ t+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30년보다 적을 것이다.

[정답] ②

[정답] ③

[해설]

[step1] 줄글 조건을 통한 t년 해석

- (1) 먼저 줄글 조건을 통해 t년 인구비를 구해보자.
t년에 을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45%, 갑국은 60%이다.
- (2) t년에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으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과 부양 인구 비율이 45%로 동일하다.
✓ 노령화 지수는 노년/유소년 이고, 노년 부양비는 노년/부양 이므로 분자는 동일하다. 두 분수가 같기 위해서는 분모가 동일해야 하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과 부양 인구 비율은 동일하다.
- (3) t년에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이므로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25이다. 갑국의 부양 인구는 6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5%이다.
- (4) 현재까지 구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유소년 인구	15		45	
부양 인구	60		45	
노년 인구	25		10	

[step2] 표 조건을 통한 t+30년 해석

- (5) t년 대비 t+3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동일하고,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했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증가했고,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했다.
- (6) t년 대비 t+30년에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동일하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감소했다. 따라서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고, 부양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모두 감소했으므로 노년 인구는 증가했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유소년 인구	15	15 ↑	45	45 ↓
부양 인구	60	60	45	45 ↓
노년 인구	25	25 ↓	10	10 ↑

[옳은 선지]

- ③ t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frac{55}{45} \times 100 \approx 122$ 으로, 120보다 크다. t+30년에 을국의 부양 인구는 감소했으므로 t년보다 총부양비가 증가했을 것이다. 따라서 총부양비는 120보다 크다.

[틀린 선지]

- ① t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frac{25}{15} \times 100$)보다 을국($\frac{10}{45} \times 100$)이 작다.
- ② t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frac{25}{60} \times 100$)이므로 50보다 작다. t+30년에 갑국의 노년 인구는 감소했으므로 노년 부양비는 50보다 작을 것이다.
- ④ <조건>에 따르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t년 대비 t+30년에 갑국에서는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고, 을국에서는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 ⑤ <조건>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노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t년 대비 t+30년에 갑국에서는 노년 인구가 감소했고, 을국에서는 노년 인구가 증가했으므로 틀린 선지이다.